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무령왕릉 내부

Tomb of King Muryeong and Royal Tombs, Gongju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백제시대의 왕과 왕족의 묘로 동쪽에는 1~4호분, 서쪽에는 무령왕릉과 5~6호분이 있다. 1~5호분은 굴 모양의 돌로 만든 무덤(굴방식 석실묘)이다. 6호분과 무령왕릉은 벽돌로 쌓았으며 중국묘제의 영향을 받았다. 왕과 왕비의 관이 일본의 금송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면 백제의 건축 기술과 주변 국가와의 교류를 파악할 수 있다. 웅진백제시기를 대표하는 무덤으로 2015년 7월에 백제역사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공주 송덕전



송덕전은 백제국 시조 온조왕(溫祚王)을 비롯하여 웅진 백제 시대(475~538)의 문주왕(文周王), 삼근왕(三斤王), 동성왕(東城王), 무령왕(武寧王)의 위패를 모신 전당으로 백제 옛 왕조의 영광을 가리는 곳이다.

매년 백제문화제가 열리는 첫날에 웅진백제대왕 추모제를 올리며 백제의 후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뜻으로 선조들의 덕을 기리고 있다.

무령왕릉



무령왕릉(武寧王陵, 백제 25대왕)은 1971년 배수로 공사를 하다 우연히 발굴되었는데, 1,500년전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완전한 상태로 발굴되었다. 이는 삼국시대 피장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한국 고대의 유일한 왕릉으로, 화려하고 세련된 미의식과 창의성, 수준높은 공예 기술을 엿볼 수 있다.

지석이 발견되어 축조연대를 분명히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삼국시대 고고학 편년연구의 기준자료가 되고 있다. 금제관식, 금제뒤꽂이, 금제심엽형이식(귀걸이), 지석, 석수, 청동신수경 등을 포함하여 총 5,200여점의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그 중 12종 17점이 국보로 지정되어 국립공주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은 사적 1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공주시 웅진동(옛지명 : 송산리)에 위치하고 있다.



사진으로 보는 무령왕릉 출토유물

무령왕의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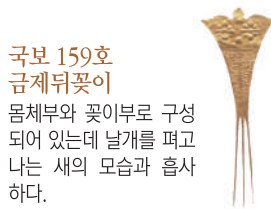
국보 제154호 왕 금제관장식
한 쌍으로 순금판 위에 문양을 예리한 조각도로 도려내었다. 127개의 달개들을 금실로 꼬아 매달았다.



국보 제156호 왕 금제귀걸이
하나의 중심 고리에 작은 고리 2개를 연결 고리로 하여 두 줄의 귀걸이를 매달았다.



고리장식 칼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 칼은 고리 안에 한 마리의 용머리가 조각되어 있다.



국보 159호 금제뒤꽂이
몸체부와 꽃이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날개를 펴고 나는 새의 모습과 흡사하다.



국보 161호 청동거울
뒷면에는 머리에 상투를 튼 신선이 동물을 사냥하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왕 나무머리받침
왕의 머리를 올려놓도록 큰 나무 토막의 중간부분을 U자형으로 만들었다.



국보 제165호 왕 나무발받침
왕의 두 발목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발받침의 중간부분을 W자형으로 만들었다.

무령왕릉 출토유물



국보 제162호 석수
돌로 만든 동물을 무덤 입구에 놓아 왕릉(王陵)을 수호하기 위한 부장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오수전
지석 위에 올려져 있던 중국 돈 두 개로 무령왕과 왕비가 문힐 땅을 구입한 돈으로 중국과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탁은잔
은으로 만든 잔과 동으로 만든 받침에는 산과 계곡, 구름, 연꽃과 고사리, 신선, 용의 얼굴에 동물의 몸을 지닌 인면조신을 새겨 왕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였다.

왕비의 유물



국보 제155호 왕비 금제관장식
왕 관장식처럼 왕비의 관장식도 금판을 오려 내어 인동문으로 장식하였고 달개가 달려있지 않아 간결한 인상을 준다.



국보 제157호 왕비 금제귀걸이
굵은 고리를 중심으로 작은 장식이 연결되어 왕의 귀걸이에 비해 간결하다.



국보 제158호 금제아홉마디목걸이, 금제일곱마디목걸이
왕비의 목걸이로 9개, 7개의 특이한 고리로 연결하여 만들었다.



국보 제160호 다리작명 은제팔찌
은팔찌의 안쪽에(다리라는 장인이 왕비를 위해 팔찌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



왕비 나무발받침
왕비의 두 발목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발받침의 중간부분을 W자형으로 만들었다.



국보 제164호 왕비 나무머리받침
왕비의 머리를 올려놓도록 큰 나무 토막의 중간부분을 U자형으로 만들었다.



금동신발
안쪽, 바깥쪽, 바닥의 3판이 서로 붙어 있으며 바닥은 네모뿔 모양의 못이 박혀있다.



국보 제163호 묘지석
왕릉 입구에 왕과 왕비의 지석(誌石)이 나란히 있어 이 무덤의 주인공이 무령왕과 왕비임을 알 수 있다.



목재관
무령왕과 왕비의 목재관은 일본에서 자생하는 금송(金松)으로 만든 것으로 보아 일본과 빈번한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시관 둘러보기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전시관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전시관은 무령왕릉 및 5·6호분을 실물과 동일한 크기의 모형으로 재현한 곳이다.

무령왕체험,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전시관 발굴과정등을 볼 수 있으며 융성했던 백제문화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웅진백제역사관

웅진백제역사관은 백제의 역사 문화 콘텐츠와 IT시스템을 활용한 교육, 홍보, 체험이 가능하여 쉽고 흥미롭게 백제문화를 접할 수 있으며 전시관과 영상실로 구성되어 있다.



정지산유적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전시관의 북쪽정지산 정상에 있는 집자리와 왕실의제사시설이다.



국립공주박물관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국보 12점 등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을 보관 전시하고 있다.



무령왕릉 발굴이야기

무령왕릉이 발견된 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71년 7월,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의 장마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로 공사를 하던 중 6호분 옆에서 벽돌무덤의 입구가 발견됩니다. 입구는 벽돌이 차곡차곡 쌓인 채로 막혀있었는데 입구를 열어보니 한번도 도굴된 적이 없는 무덤인 것이 확인되었죠. 1,500년 동안 땅 속에 묻혀있던 무령왕릉이 세상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령왕릉 내부가 노출되는 순간



출토 작업 중에 연도에 있는 지석과 진묘수가 드러나고 있다.

무령왕릉 발굴 조사단이 가장 처음 보게 된 것은 입구에 놓여있던 진묘수와 지석이었습니다. 지석을 살펴보니 그동안 왕릉원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무덤주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寧東大將軍百濟斯
麻王年六十二歲癸
卯年五月丙戌朔七
日壬辰朔到乙巳年八
癸酉朔十二日甲申安
登冠大墓立志如左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 62세 되는 계묘년(523년) 5월 7일 임진날에 돌아가셔서, 을사년(525년) 8월 12일 갑신날에 이르러 대묘에 예를 갖추어 안장하고 이와 같이 기록한다.”

지석에 새겨져 있는 ‘백제 사마왕’은 무령왕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령왕의 기록은 『삼국사기』 백제본기 무령왕 부분과 완벽하게 동일했습니다. 왕릉 안에는 무령왕, 무령왕비의 관과 함께 약 124건 5,200여점의 유물이 묻혀 있었습니다.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둘러보기

관람시간 09:00~18:00

관람요금 어른 1,5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700원

위 치 공주시 왕릉로 37

문 의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관광안내소 041-856-3151



1코스 웅진백제역사관 ▶ 매표소 ▶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전시관 ▶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 송덕전 ▶ 백제오감체험관

2코스 웅진백제역사관 ▶ 매표소 ▶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전시관 ▶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 송덕전 ▶ 정지산유적 ▶ 국립공주박물관 ▶ 한옥마을 ▶ 백제오감체험관



“공주랑” 공주시 다국어 관광 안내 서비스
스토어에서 “공주랑(GONGJURANG)”을 검색하세요



백제숨결을 찾다
세계유산의 품은 도시 공주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